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7. 2.(목) 07:00 ~ 22:00
- 상담건수: 667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프로그램명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방송일시 : 2TV

해설위원과 캐스터를 비롯한 중계진 모두 잘해준 덕분에 월드컵을 매일 잘 보고 있다. 평소 즐겨 보던 프로그램보다 월드컵 중계를 선택할 정도로 만족스러운데, 만약 KBS에서 중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중계를 해준 KBS에 감사하고 남은 경기도 잘 부탁한다.

○ 보도 요청(1명)

-프로그램명 : 「KBS 뉴스」

-방송일시 : 1TV

본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최근 AI 활용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의 일을 AI가 대신하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우려된다. 젊은 사람은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걱정이 크다.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관련한 우려를 뉴스에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66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272	57	-	-	338	66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28	254	4	-	1	80	66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93	574	-	66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55	1	39	72	667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중계방송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선관위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 - 편성 제언 ○ 「누가 누가 잘하나」 - 결방 제언 【보 도】 ○ 「KBS 뉴스 7」 - 보도 제언 ○ 「KBS 뉴스」 - 보도 요청 【스포츠】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 방송 호평 【시사·교양】 ○ 「6시 내고향」 - 방송 제언 【연예·오락】 ○ 「가요무대」 - 자막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마늘」 연락처 문의 50건 ○ 「2TV 생생정보」 - 「화덕 생선구이」 연락처 문의 34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22건 ○ 「2026 FIFA북중미 월드컵」 - 「자막 제언」 11건 ○ 「아침마당」 - 「출연자」 문의 9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20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5건 ○ 「주차」 문의 2건 ○ 「인터넷 방송」 문의 1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1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7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 「중계방송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선관위 국정조사 2차 기 관보고」 (1명) - 2026. 7. 1.(수) 1TV (14:35-16: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 간 질의응답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정규방송 편성으로 중계가 도중에 종료되었다. 더불어민 주당의 김영배 의원의 질의까지는 시청했지만 국민의힘 김은 혜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중계가 끝나니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끝까지 시청하지 못해 아쉽다. ※의견제시자 : 익명
결방 제언	○ 「누가 누가 잘하나」 (1명) - 2026. 7. 2.(목) 2TV (16:30-17:30) - 아이들과 동요를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시청해 온 프로그램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를 부탁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보 도]	
보도 제언	○ 「KBS 뉴스 7」 ‘고환율에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1,560 원 터질까?’(1명) - 2026. 7. 1.(수) 1TV (19:00-19:40) - 뉴스에서는 레쓰비 가격이 7.6% 인상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마 트에서 1+1 행사로 구매했다. 뉴스 내용과 체감되는 판매 상황 이 달라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보도 요청	○ 「KBS 뉴스」(1명) - 1TV - 본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최근 AI 활용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의 일을 AI가 대신하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우려된다. 젊은 사람은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걱정이 크다.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관련한 우려를 뉴스에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스포츠]	
방송 호평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1명) - 2TV - 해설위원과 캐스터를 비롯한 중계진 모두 잘해준 덕분에 월드컵을 매일 잘 보고 있다. 평소 즐겨 보던 프로그램보다 월드컵 중계를 선택할 정도로 만족스러운데, 만약 KBS에서 중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중계를 해준 KBS에 감사하고 남은 경기도 잘 부탁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시사·교양]	
방송 제언	○ 「6시 내고향」(1명) - 2026. 6. 30.(화) 1TV (18:00-19:00) - 강원도 평창 브로콜리 농장의 연락처를 알고 싶는데 공개된 연락처가 없어 아쉽다. 방송에 소개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문의하려는 시청자들을 위해 연락처나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연 예 · 오 략]	
자막 제언	○ 「가요무대」(1명) - 2026. 6. 29.(월) 1TV (22:00-22:55) - 신청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자막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진다. 이날은 중간도 채 읽기 전에 자막이 사라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주로 60대나 70대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막 노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